

삼성 오픈소스 컨퍼런스 SAMSUNG OPEN SOURCE CONFERENCE

OPEN YOUR UNIVERSE WITH SOSC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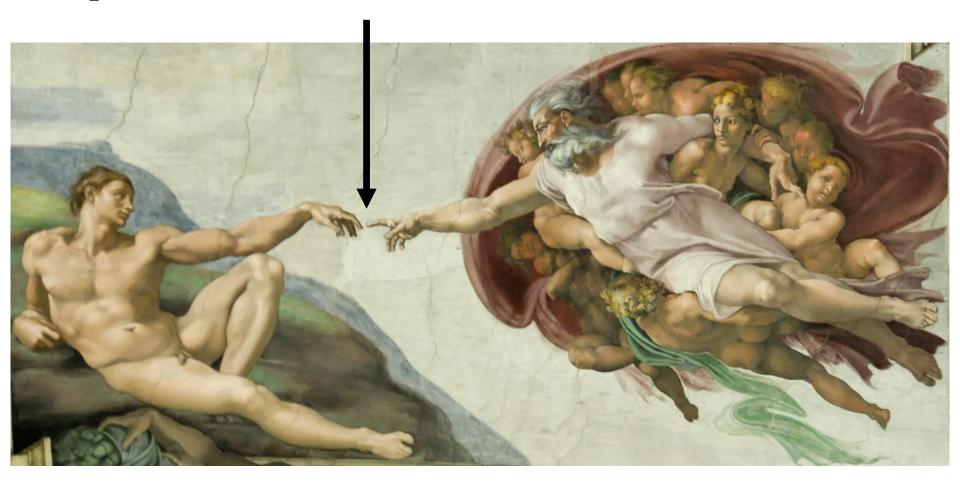
# For 학생 & 취준생 오프소스와 커뮤니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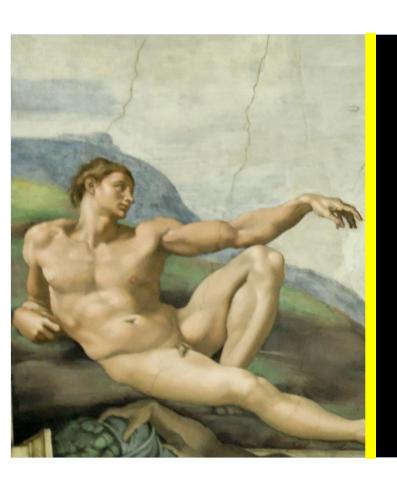
# Ubuntu Korea Community

장태희 (jang@ubuntu-kr.org)

2015, 10, 28

Open Source, 유능한 개발자, 해외 취업…





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, 넘사벽인거 같은데…

주위 사람한테는 물어봐도 관심 없거나 잘 몰라…

일단 졸업부터, 들어갈 곳 부터, 방바닥이 차갑다.

지금 당장 할 것도 많은데, 뭘 더 하라는 건가?



망한건가

오늘의 테마

# 저도 제 앞날이 걱정 되어 만든 세션

### **Agenda**

- 1. 오픈소스, <mark>왜</mark> 해야 하는가? 할 만한 이유? 너와 나의 연결 고리 먹고 사는 걱정 하기
- 2. 오픈소스와 친해지길 바래?
- 3. 커뮤니티? 예는 왜 필요한가?
- 4. 결론

#1

할 것도 많은데, **왜**?

# 미래의 능력 있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?

# 지<mark>켜</mark>보고 있다



#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

# 기업들이 지켜보고 있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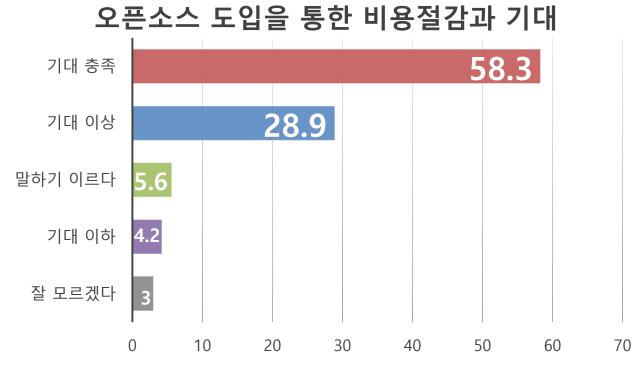
#### 기업의 관심① - 비용 절감

Bukwang Pharmaceuticals cut IT costs and created business value with Ubuntu

By Canonical on 31 July 201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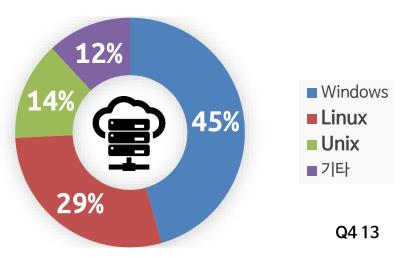
#### SW업계, 비용 50% 절감 오픈소스 주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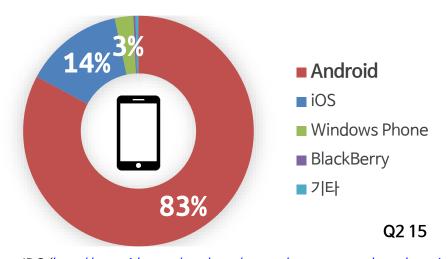
레드햇·마리아DB 등 빅데이터·IoT시대 맞아 상용솔루션 전환 이형근 기자 bass007@dt.co.kr | 입력: 2014-07-13 19:00 [2014년 07월 14일자 9면 기사]



2011 / 03 Capgemini France (http://docplayer.fr/3012019-Open-source-mythes-realites-la-creation-de-valeur-grace-aux-technologies-open-source.html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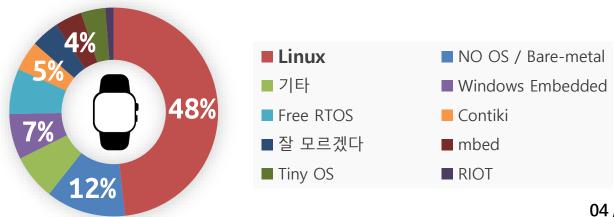
#### 기업의 관심② - Future Market





IDC (http://catalog.flatworldknowledge.com/bookhub/reader/22205?e=fwk-38086-ch09\_s02)

IDC (http://www.idc.com/prodserv/smartphone-os-market-share.jsp)



04 / 15

Eclipse Foundation (http://www.slideshare.net/lanSkerrett/iot-developer-survey-2015)

기업의 관심③ - 인재채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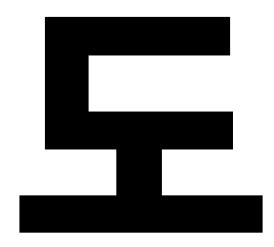
Let Me Introduce Myself..?



KEEP CALM AND WORK HARD & STUDY HARD!

→
Github과 같이 과거 기록과 경력을 볼 수 있는 곳이 생기기
시작했다!

# 국내 기업들



# 지켜보기 시작했다



#### 오픈소스 기술 지원 / 제품군 개발사들













Source - <a href="http://www.oss.kr/oss\_techsupportlist">http://www.oss.kr/oss\_techsupportlist</a> (분야별 6개씩, 중복 기업은 임의로 하나만 표기)

#### 오픈 소스 솔루션을 개발지원 / 개발 / 공개 하는 회사들











#2

# 국내에서 오픈소스로 취직하고 싶습니다



# 어떻게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취직을?

#### 채용 공고- A사

오픈소스 가이던스 기술 <u> 지원하기</u> > 모집기간 : 영입 종료시까지 ◆ 업무내용 - 오픈소스 라이선스 검증 및 이슈 해결 -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련 교육 - Inner Source 적용 - 오픈소스를 통한 기술 상생 ◆ 지원자격 - 5년 이상의 개발 경험 - GitHub 사용에 능숙한 분 - 분석력, 디테일이 강한 분 - 유연한 사고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- 오픈소스에 관심이 많은 분 - 새로운 기술 및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분 ※ 우대사항 모바일(Andriod, iOS)개발 경험 잘 알려진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강력한(!) 커밋 경험 공개 SW 라이선스 검증 경력 영어 독해에 자신 있는 분

#### 채용 공고 - B사

#### **Linux Engineer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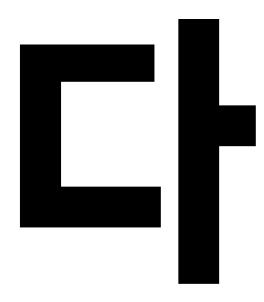
모집부문	Linux Engineer 부문
모집인원	0명
담당업무	- 고객 기술지원 및 영업지원 - 구축 및 설치, 장애 조치 및 대응 - 제품관련 고객 기술자문 - 유지보수 점검 및 지원
자격요건	<ul> <li>● 우대사항</li> <li>- 관련분야 2년 이상 실무 경력자- Xen, KVM 등 설치 유경험자</li> <li>- 컴퓨터 관련 학과 전공자</li> <li>- 관련분야 자격증(Linux Master 1st grade, LPIC, RHCSA, RHCE 등) 소지자</li> <li>● 필요역량</li> <li>- Open Source Software에 열정을 가진 자</li> <li>- 긍정적 사고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자</li> <li>- 성실성, 책임감, 적극성을 갖춘 자</li> <li>- 자신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는 자</li> </ul>

# 자료가 얼마 없다

# 보내자

# 메일을

# 어디에



#### Korea IT Industry Map - Consumer (Mobile)



#### 오픈소스 활용 및 채용 기준 사례 - C사

- 1. 현재 개발 하는 주력 제품 / 분야 A: 모바일 서비스 개발
- 2. 개발 하는 제품 / Tool에 오픈소스를 사용 하는 비율은?
  A: Apple, Google, Apache Open Source를 주로 사용.
  (상용보다) 오픈소스를 훨씬 더 많이 사용
- 3. 채용시 가장 <mark>중요</mark>하게 여기시는 부분과 오픈소스에 관한 부분도 고려? A:해당 기술에 대한 "이해도" → 오픈소스 커미터라면 이미 검증.
- 4.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공부한다면, 입사 후 진행 중인 사 내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?

A: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공부한다는 것은, 좋은 개발자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다른 사람의 좋은 코드를 보기 때문에(코드리뷰) 도움이 될 거라 생각.

#### 오픈소스 활용 및 채용 기준 사례 - D사

- 1. 현재 개발 하는 주력 제품 / 분야 A: 헬스케어 관련, 물류관련, 앱서비스 관련, 소프트웨어 공학관련 솔루션 등
- 2. 개발 하는 제품 / Tool에 오픈소스를 사용 하는 비율은?
  A: 매우 높음. 주요한 프레임웍들의 대부분이 오픈소스 기반으로 가동.
  비율은 코어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영역이기 때문.
- 3. 채용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과 <mark>오픈소스에 관한 부분도</mark> 고려? A: 오픈소스의 커미터의 경우는 매우 높게 대우, 특정기술이 회사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더욱 만족.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높게 인정.
- 4.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공부한다면, 입사 후 진행 중인 사내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?

A: 오픈소스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, 리뷰를 하거나 자신의 소스에 대해서 애정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면 매우 도움이 될 거라 생각.

#### 오픈소스 활용 및 채용 기준 사례 - E사

- 1. 현재 개발 하는 주력 제품 / 분야 A: 안드로이드 앱 및 사용성 분석
- 2. 개발 하는 제품 / Tool에 오픈소스를 사용 하는 비율은?
  A: 개발 제품 오픈소스 100% / Tool 오픈소스 95% (Java, Python, Hadoop, Spark…)
- 3. 채용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과 오픈소스에 관한 부분도 고려? A: 오픈소스 기여 및 Github에 Pet 프로그램 작성 여부 + 코딩 실력 및 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사람
- 4.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공부한다면, 입사 후 진행 중인 사 내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?
  - A: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해 본다는 건 코딩 및 커뮤니케이션, 이슈 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다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.

#### 오픈소스 활용 및 채용 기준 사례



- 현재 개발 하는 주력 제품 / 분야
   A: 리디북스 어플리케이션, 리디북스 서점
- 2. 개발 하는 제품 / Tool에 오픈소스를 사용 하는 비율은?

A: Realm, Retrofit, EventBus, Grunt등 굉장히 적극적 사용 개발 보조 도구의 경우 상용 vs 오픈 50: 50 사용

3. 채용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과 오픈소스에 관한 부분도 고려?

A: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술과 연관된 프로젝트에 기여한 경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나, 개인적인 번역 혹은 테스트 코드를 커밋한 경력이라도 가산점을 부여

4.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공부한다면, <mark>입사 후 진행 중인 사</mark> 내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?

A: 큰 도움.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최신 오픈소스들도 적극적으로 활용 중. 작업중인 프로젝트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함. 앞으로도 여러 결과물들을 오픈소스로 제공할 계획.

#### 오픈소스 활용 및 채용 기준 사례

# JellyBus

- 1. 현재 개발 하는 주력 제품 / 분야 A: 모바일 사진 및 영상 App(MOLDIV, Rookie Cam, PICS PLAY)
- 2. 개발 하는 제품 / Tool에 오픈소스를 사용 하는 비율은?
  A: 대부분 자체 기술 + 오픈소스는 주로 외부 규격 연동시.
  Tool은 Xcode, Android Studio, Git 등 상용 vs 오픈 7:3의 비율로 사용
- 3. 채용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과 오픈소스에 관한 부분도 고려?
  A: OpenCV, Open GL등 영상/이미지 처리 관련 우대
  오픈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 경력이 있는 경우, 개발자 스스로의 성장하고자 하는 자 질과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긍정적 평가
- 4.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공부한다면, 입사 후 진행 중인 사 내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?
  - A: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<mark>자발적으로</mark> 본인의 역량을 성장시키고 <mark>자질을 검증</mark>할 수 있는 경험, 개발자로서는 어떤 회사에서라도 좋은 경력으로 평가.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와 <mark>연관 있는</mark>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경험 추천.

#3

### 우리는 뭘 어찌해야 하는가

### 그리고 커뮤니티

### 이건 또 뭔가

#### 취업 준비생에게…

"상용이나, 오픈이냐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분야의 대한 이해도를 더 높여야…

오픈소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'열린 환경'이다."

- *마이크로소프트웨어 도안구 기자* 

## "Open Place"

## 공간을 잘 활용하자

Why?

취준생 **역량을 강화** 할 수 있는 글로벌 **개발 협업**을 직접 볼 수 있는 각 분야의 **이해도**를 높일 수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학습에도 **직간접적 도움**이 될 수 있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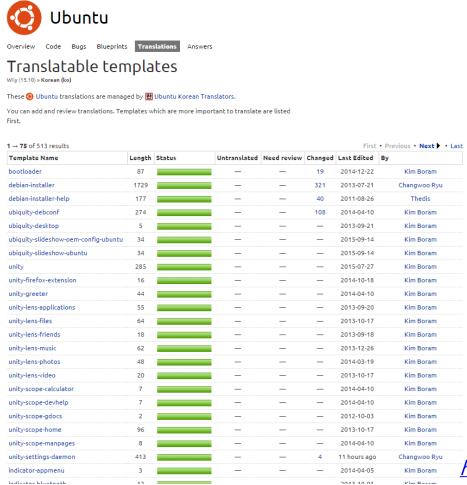
## OK. 그렇다면, How?

##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

### 우리도 무언가를 남겨보자

### 일단 써보고, 좋으면

#### 오픈소스와 친해지기① - 번역(Translate)



#### 오픈소스와 친해지기② - 기여(Contribute)

Gruter Team Blog



도전! Apache Tajo Contributor.

#### Prologue.

이 글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코드에 대한 기여를 통해 Contributor 가 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작성 한 것입니다. 수많은 Apache Open Source Project 중에 최근 가장 Hot 한 Apache Tajo를 기준으로 Contributor 가 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Git 명령어와 Github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글이 조금이나마 망설이고 있던 많은 예비 Contributor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.

#### 시작하기에 앞서.

도전하기에 앞서 내가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해당 Open Source Project 의 Roadmap 상에 존재하는지 누군 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시작하시면 좋습니다.

Apache Tajo Roadmap 확인하기. Apache Tajo Issue 확인하기.

#### 도전! Apache Tajo Contributor.

기본 콘셉트는 아래와 같은 단계를 가집니다.

- Step 0. Github 개인 계정으로 Apache Tajo Master Branch Fork 하기
- Step 1. Apache Tajo Master 소스를 로컬 Repository로 Clone
- Step 2. 개발용 Branch 와 코드 Merge 및 Push 용 Branch 생성
- Step 3. 개발용 Branch에서 코딩 시작
- Step 4. 개발이 완료되면 코드 Merge를 위해 생성해 놓은 Branch 와 Merge
- Step 5. Patch 파일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Master Branch 와 Diff를 이용해 Patch 생성
- Step 6. Merge 된 Branch를 개인 Github로 Push 하り かまた! //teamblog.gruter.com/apache-tajo-contributor-starter/
- Step 7. Github 사이트에 들어가면 등록된 Branch로 Pull Request 버튼이 생성



#### 오픈소스와 친해지기③ - 커밋(Commit)

#### Write Code Every Day

Last fall, work on my <u>coding side projects</u> came to a head: I wasn't making adequate progress and I couldn't find a way to get more done without sacrificing my ability to do effective work at Khan Academy.

There were a few major problems with how I was working on my side projects. I was primarily working on them during the weekends and sometimes in the evenings during the week. This is a strategy that does not work well for me, as it turns out. I was burdened with an incredible amount of stress to try and complete as much high quality work as possible during the weekend (and if I was unable to it felt like a failure). This was a problem as there's no guarantee that every weekend will be free – nor that I'll want to program all day for two days (removing any chance of relaxation or doing anything fun).

There's also the issue that a week between working on some code is a long time, it's very easy to forget what you were working on or what you left off on (even if you keep notes). Not to mention if you miss a weekend you end up with a two week gap as a result. That massive multi-week context switch can be deadly (I've had many side projects die due to attention starvation like that).

Inspired by the incredible work that <u>Jennifer Dewalt</u> completed last year, in which she taught herself programming by building 180 web sites in 180 days, I felt compelled to try a similar tactic: working on my side projects every single day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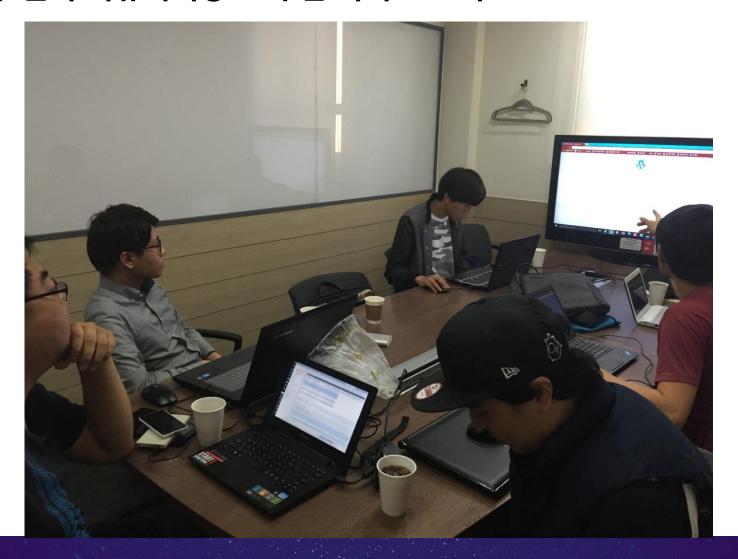
Korean Version - <a href="http://blog.outsider.ne.kr/1141">http://blog.outsider.ne.kr/1141</a>

Source - http://ejohn.org/blog/write-code-every-day/

### 그래서 우리는 시작했습니다

### 주간 기여 프로젝트

####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① - 주간 기여 프로젝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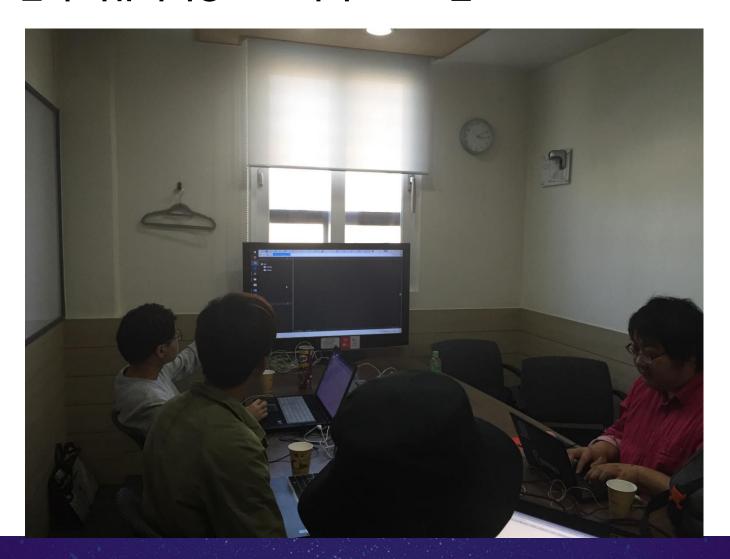


우분투 한국 커뮤니티① - 주간 기여 프로젝트

### 일주일에 한번 이라도

### 스터디 프로그램

####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② - 스터디 프로그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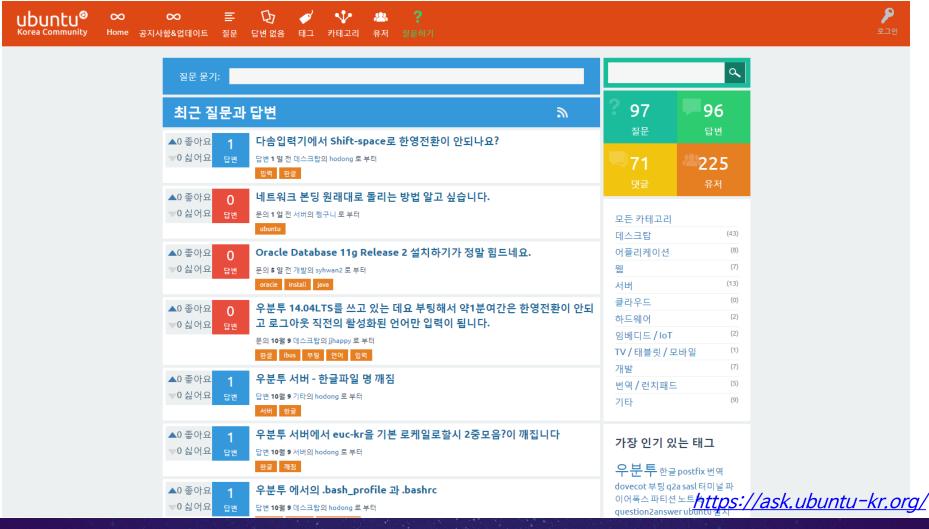


우분투 한국 커뮤니티② - 스터디 프로그램

## 수강생이 배우러 왔다가 강사가 더 배워 나간다는 바로 그 스터디

### Ask Ubuntu KR

####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③ - askubuntu KR



우분투 한국 커뮤니티③ - askubuntu KR

###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보려고 오픈 했더니 다른 분들이 더 많이 물어보시더라

# 세줄요약

정리

Open Place 에서

마음껏 Commit 할 수 있는 그 날 까지

**커뮤니티가** 함께하겠습니다



# THANK YOU!